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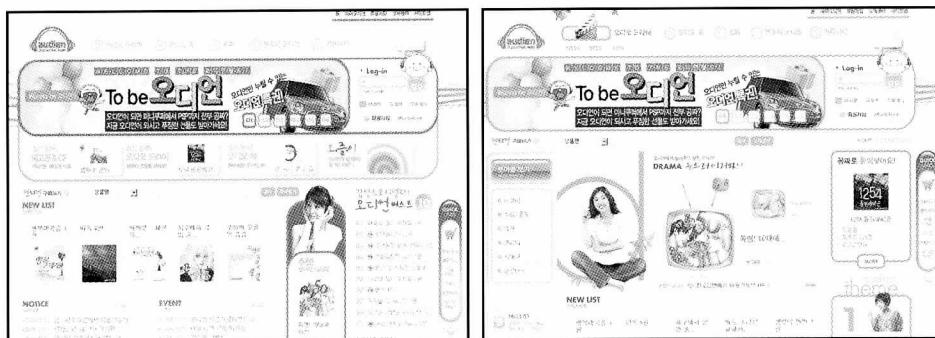
책을 읽어주는 사이트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벌써 2006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참 세월이 화살과 같다느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지킨 것보다 지키지 못한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다. 연초에 올해 계획 중 하나가 바로 한 달에 한권정도 책을 읽는 것 이었는데 생각해 보니 이제껏 읽은 책이 달랑 3권뿐이다.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돌이켜 보면 항상 실천하지 못한 것 같다. “계획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하면 속은 편하지만 매번 그리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책볼 시간이 없다면 듣는 것은 어떨까? 이번 호에서는 책을 읽어주는 사이트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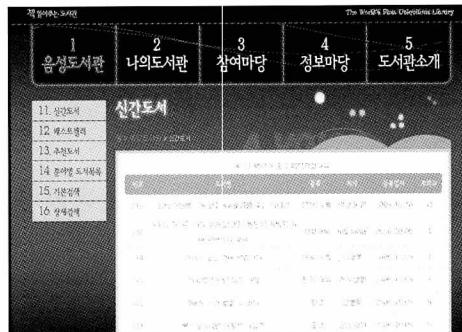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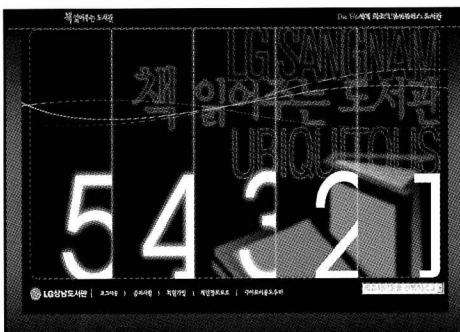
Audien(audien.com/)

▶Audien은 ‘Audio(듣다)’와 집단을 의미하는 ‘en’의 접미사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오디오 콘텐츠를 즐기는 집단이라는 의미이다. 이용서비스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듣기만 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해당 콘텐츠를 다운 받을 수 있는 상품 다운로드 서비스이다. 이용요금은 편티켓과 편캐쉬로 나뉘어 있는데, 편티켓의 정액권을 구입하면 일정기간 동안 모든 자료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편캐쉬를 구입하면 해당 자료를 다운받아 컴퓨터, 또는 MP3플레이어에 저장하여 들을 수 있다.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는 오디오 드라마, 오디오 북, 무료 이용 등이 있고 드라마의 경우 장르에 따라 드라마, 추리/공포, 액션, 코미디, 시대극으로 나누어져 있다. 오디오 북은 장르별로 문학, 경제경영, 자기계발, 교양, 한국고전명작, 세계고전명작, 한국문학 100선으로 나누어져 있다. 커뮤니티 공간에는 리틀작가마을, 리틀성우마을, 인사이드오디언, 오디언리뷰 등의 메뉴가 제공되고 있는데, 리틀작가마을에서는 작가를 꿈꾸는 일반인들이 올린 소설이나 엣세이 등이 소개되어 있고, 리틀성우마을에서는 장래 성우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녹음한 자료들이 올려져 있다. 오디언리뷰에서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드라마나 도서의 리뷰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용 요금은 스트리밍의 경우 400원 내외, 다운로드의 경우는 600~2,000원 선이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lg.or.kr/)



서는 음성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파일을 다운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자격은 실제 시각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며 복지카드나 장애인 수첩을 팩스로 전송하여 회원가입을 요청하면 처리해 준다. 주 메뉴에는 1. 음성도서관, 2. 나의 도서관, 3. 참여마당, 4. 정보마당, 5. 도서관 소개로 나뉘어져 있고 음성도서관 메뉴에는 등록된 도서를 등록일에 따라 신간도서, 추천 수에 따라 베스트셀러, 분야별 도서, 도서검색, 상세검색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의 도서관 메뉴에는 책갈피, 다운로드한 책 목록,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고, 참여마당에서는 독자들이 읽은 글에 대해 감상문을 쓰거나 기타 의견 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 등 책을 읽기가 불편한 사람들 을 위해 만들어진 책 읽어주는 도서관은 LG 상남도서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만 들어졌다. 현재 소장 되어 있는 도서는 약 300여권으로 모든 도



컴퓨터 활용 Tip

■ 윈도우XP에서 파일명 한꺼번에 바꾸기

윈도우 XP는 여러 개의 파일 이름을 한꺼번에 바꾸는 재주가 있다. 파일 형식이 서로 달라도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름을 바꿀 파일을 모두 고르고(Shift or Ctrl 키 이용)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이름 바꾸기'를 고른다. 윈도우 XP에서 여러 개의 파일 이름을 바꿀 때는 첫 번째 파일에 이름만 쓴다. 예를 들어 '안전제일'이라고 하면 첫 번

째 파일은 '안전제일'이 되고 나머지 파일들은 '안전제일(1)' '안전제일(2)' 등으로 바뀐다. 만약 첫 번째 파일 이름을 '안전제일(10)'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전제일(11)' '안전제일(12)' 가 된다.

■ 윈도우XP 제멋대로 재부팅 못하게 하기

윈도우 XP는 너무 민감한(?) 나머지 프로그램에 조그만 오류가 생기면 저절로 재부팅이 된다. 물론 그 오류가 심각할 때도 있지만 별 문제 가 되지 않는 데도 PC를 재부팅해서 이용자를 귀찮게 한다.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도 시스템이 재부팅 되지 않게 해보자. 바탕화면의 '내 컴퓨터'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속성'을 고른 다음 '시스템 등록정보' 창의 '고급' 탭에서 '시작 및 복구' 칸의 '설정' 버튼을 누른다. '시스템 오류' 칸에 있는 '자동으로 다시 시작'의 체크 표시를 없애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